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2.(목)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강해정	☎044-300-7178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 “은하수공원, 세종시민 위한 선제적 이용 대책 마련해야”

- 봉안시설·자연장지 관외 이용 54.4%… 봉안당 2030년 포화 전망 -

- 지역 연고성·가족관계 고려한 이용 기준 정비 및 중장기 수급 대책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은하수공원의 시설 포화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 세대 세종 시민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용 기준과 중장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먼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한번 고인을 모시면 장기간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용자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25년 봉안당 계약 만료 대상의 62.8%가 이용 기간을 연장했고, 12%는 공원 내 자연장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이용 1만

8,032건 중 9,804건은 관외 이용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이미 봉안당의 74.7%가 사용 중이며, 세종연구원은 봉안당이 2030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목장과 잔디장도 각각 2032년과 2035년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시설 사용 자격 제한 관련 내용이 없는 반면, 대전시와 청주시, 화성시 등은 거주기간과 가족관계에 따른 이용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관외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지역 연고성과 가족관계 등을 반영해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이용과 미래 수요를 우선하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사시설은 부지 확보와 조성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10년, 20년의 이용 수요까지 고려한 중장기 시설 확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시설별 운영현황 점검과 한정된 안장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지역 연고성과 가족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이용 기준 정비 ▲시설별 포화 시점과 장래 수요, 재정 부담을 반영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은하수공원 사용 자격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집행부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시민이 고인을 모실 공간마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은하수공원이 미래에도 세종 시민의 마지막 안식처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합리적인 이용 기준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